고흥 우주산단 가시화… 기업 수요 141%, 남해안 벨트 속도

한화에어로 등 11개 기업과 협약
발사장 1단계 공사 공정률 85%
전남광주, 제2우주센터 유치 목표


전남광주시가 추진해 온 우주산업 기반 확충이 실행 단계로 접어든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시가 추진해 온 우주산업 기반 확충이 실행 단계로 접어든다. 민간 발사장과 시험·인증시설에 기업 생산·연구 공간까지 연계되는 산업 기반이 구체화되면서 제2우주센터 유치와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동력은 기업들의 입주 수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11개 기업은 2024년 입주협약을 체결했으며 비츠로넥스텍과 이노스페이스, 세일엑스, 더블유피, 우리별, 동아알루미늄, 파루,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우나스텔라, 중앙이엠씨가 참여했다. 국방연구시설과 협약기업 부지에 더해 입주의향서나 업무협약을 제출한 기업들의 수요까지 반영하면 산업시설용지 125만㎡를 기준으로 수요가 141%에 이른다.

우주발사체 기업들이 발사장과 가까운 곳에 생산시설을 두려는 배경에는 운송 위험과 비용 문제가 있다. 발사체를 장거리 이동하면 운송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물류비 부담도 늘어난다. 국가 주도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이동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나로우주센터 인근을 입지 후보로 삼는 이유다.

산업단지 주변에서는 발사와 시험평가를 뒷받침할 기반시설도 구축되고 있다. 국비 1206억원이 투입되는 민간 발사장은 고체연료 발사장과 이송로를 포함한 1단계 공사가 공정률 85%를 기록했으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액체 발사장과 조립시험시설은 2027년 11월 착공해 2030년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발사체 개발부터 시험평가와 인증까지 지원하는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는 사업비 274억원 규모로 기본설계를 마쳤다. 센터에는 금속 3D프린터 등 생산 지원 장비 4종과 진동시험기·음향챔버를 포함한 성능평가 장비 6종 등 모두 10종이 들어선다. 2028년부터는 600억원 규모의 운영단계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는 이 같은 발사·시험 기반을 실제 생산과 연구 활동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로우주센터와 민간 발사장,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이에 제조·연구 거점이 조성되면 기업들은 발사체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한 권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인프라가 연계될수록 고흥이 우주발사체 산업의 집적지로 성장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 같은 여건은 제2우주센터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발사시설과 재사용 착륙시설 등을 구축하는 제2우주센터 사업에는 전남광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응모해 경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운용성뿐 아니라 발사 인프라 구축 여건과 입지·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하반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해안 지역의 우주항공산업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우주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벨트 조성이 포함돼 있다. 전남광주시와 경남도는 지난 26일 '남해안권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기반을 연계하기로 했다.

양 지역은 고흥의 우주발사체 기반과 사천·진주의 위성 제조·연구 역량을 연결해 남해안 산업벨트를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흥(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충남도, 자율주행 심야버스 도입

고속버스 연계해 이동 편의 향상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 운행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운전대가 없는 9인승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선보인다. 야간 고속버스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심야시간대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검증에 나선다.

충남도는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하나로 자율주행 심야버스 1대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되는 차량은 기존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순환버스와 달리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9인승 버스다. 정해진 구간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을 수행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췄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탑승하며, 비상 상황에서는 수동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 노선은 내포신도시 환승센터를 출발해 경남아너스빌, 지형놀이공원, 자경마을삼거리, 내포신도시 남광장,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이지더원아파트를 연결하는 총 6㎞ 구간이다.

운행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일, 하루 4회 실시한다. 내포신도시 환승센터에 도착하는 하행선 고속버스와 연계해 오후 8시 40분, 9시 35분, 10시 35분, 11시 35분에 각각 출발한다.

도는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야간 조명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버스 도착 시간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용객 수요와 승하차 유형 등 운영 자료를 수집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과원, 중기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내달 1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보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나선다.

경과원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무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보안 예산이 부족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IT) 자산과 보안 취약점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경과원은 기업의 홈페이지·서버·이메일 등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을 확인하고, 보안 취약점과 다크웹 내 유출정보를 탐지·분석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점검 결과는 위험도별 분석 보고서로 제공해 기업이 보안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숲.

영양 자작나무숲, 가을 단풍 명소로 주목

데크길 따라 만나는 단풍 절경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숲이 하얀 나무줄기와 붉고 노란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 풍경으로 나들이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목재 데크길을 따라 숲과 계곡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으려는 방문객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전하고 있다.

하늘을 향해 뻗은 자작나무의 흰 수피는 주변의 단풍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가을 숲 특유의 색감을 드러낸다. 노란 잎과 붉은 단풍이 숲 곳곳에 어우러지면서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영양의 산림 경관을 보여준다.

목재 데크길은 방문객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산책 코스다. 길 주변의 단풍과 계곡 풍경이 걷는 재미를 더하며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은 가족과 연인·친구들이 방문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 APEC 개최 1년 만에 관광 '활기'

외국인 관광객 15% 증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1주년을 맞아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경북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공사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북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465만6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경주는 116만2000여 명으로 19.6%, 안동은 27만8000여 명으로 34.5% 늘었다.

공사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비 등 150억원을 투입해 보문관광단지 야간경관을 개선했다. 보문호반광장에 APEC 상징조형물과 미디어아트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주요 교량의 경관조명을 정비했다.

민간투자 유치도 추진했다. 지난 1년간 보문단지 내 10개 기업과 5000억원 규모의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전국 최초로 복합시설지구를 도입했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지역상품권 5% 추가 환급

포항시가 이달 15일까지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카드형·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 결제액의 5%를 추가로 돌려준다.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번 후캐시백 행사에는 국비 6억 3,600만 원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10% 선할인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최대 15%, 착한가격업소에서는 기존 캐시백 5%를 더해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도입한 무혜택 충전금 결제에도 5% 후캐시백이 적용되지만 정책수당은 제외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경북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 3000명 선발

경북교육청은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형은 도내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15개 영재교육기관에서 약 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수학·과학·정보·인문사회·인공지능(AI)·융합·예술 등이다.

선발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학교 밖 청소년 전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 '숲 체험' 운영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어린이대공원 숲길과 명상숲에서 '가을숲 체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걷기와 명상, 스트레칭,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 열리며 어린이대공원 이용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15명으로,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로 신청받는다.

3일 '만나는 숲'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 친밀감을 쌓은 뒤 압화를 활용한 티코스트 만들기, 숲속 찻집, 싱잉볼 명상에 참여한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인천시

'ICNX 2026' 송도서 내일 개최

인천시가 첨단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 'ICNX 2026'을 개최한다.

시는 3일부터 4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A·B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슬로건은 '엔터테크의 연결, 비즈니스의 확장'이다.

B2B 20개사와 B2C 17개사가 참여해 첨단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를 선보인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